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문화적 성향과 건조환경에 관한 연구 : 대림2동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박찬영¹, 최준호^{2*}

¹컬처앤스페이스 대표, ²서울대학교 건축환경중합연구소 조교수

A Study on the Cultural tendency and Built Environment of Foreigner Cluster: for Daelim 2dong Chinatown

Chan-Young Park¹, Junho Choi^{2*}

¹Director, Division of Architectural research, CultureNSpace

²Assistant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Construction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중국의 문화 성향이 국내 중국인 집단거주지역에서 물리적 건조환경의 변화에 대한 영향과 두 요소간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의 문화를 정량적으로 정의하고 비교할 수 있는 호프스테드의 cultural dimension 이론을 활용하여 중국의 문화 성향을 조사하고, 선행연구를 통한 선정된 환경평가요소를 기준으로 대상지를 실증조사하고 문화 성향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인의 집단주의적이고 불확실성회피하는 성향이 대림2동의 중국인 집단거주지역의 건조 환경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주민 공동체의 문화 성향이 집단거주지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차이나타운을 포함한 다양한 이주민 공동체마다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다문화국가, 외국인 밀집지역, 문화비교이론, 건조환경, 차이나타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factors and the influence of Chinese cultural orientation on the change of physical dry environment in the domestic Chinese residential area. To this end, Hofsted's cultural dimension theory, which can quantitatively define and compare the national culture, is used to investigate the cultural orientation of China. The association was analyzed.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collectivist and uncertainty-avoidance tendency of the Chinese influenced the formation and change of the dry environment of the Chinese residential area in Daelim 2-dong. This study is meaningful in confirming that the cultural orientation of the migrant community affects the formation and change of collective residences, and through this,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in preparing policies suitable for various migrant communities including Chinatown.

Key Words : Multicultural country, Foreign cluster, Cultural comparison, Built environment, Chinatown

*Corresponding Author : Junho Choi(ho3737@snu.ac.kr)

Received October 26, 2020

Accepted December 20, 2020

Revised November 25, 2020

Published December 28, 2020

1. 서론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은 매년 10% 내외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속도는 체류 외국인이 2040년 국내 총인구의 10%를 차지하게 되고, 이는 2010년 영국과 같은 수준으로 한국이 다문화국가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변화에 본 연구는 국내 이주민 집단거주지에서의 건조환경 변화가 이주민의 문화 성향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 이러한 영향이 문화적 동화와 문화 가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호프스테드의 국가문화 비교이론을 활용하여 이주민의 문화 성향을 조사하고 선행연구를 통한 환경평가요소를 기준으로 이주민 집단거주지의 건조환경을 실증조사하고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여 그들이 국내사회로 안정적 정착과 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가장 많은 중국인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중 대표적인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 차이나타운을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장은 2009년 6월 14일, 30일 2차례 방문하여 도시건축환경 요소를 실증조사하였다.

2. 문화의 다양성

2.1 문화와 정체성

문화는 한 집단의 삶의 양식을 의미하고 있다. 즉, 문화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공유된 행동 양식이면서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문화는 어떠한 물체나 인간의 피상적인 행위를 의미하기보다는 그것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생각, 가치이다. 물체와 행위는 주어진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생활과 사고들이 만들어낸 문화의 부수물로 본다[1].

한 국가의 문화는 민족성, 국가의 문화 등으로 불리며 집단의 역사, 정체성, 경험 등으로 구체화 된다. 특히 공간과 장소는 집단 정체성이 결정적으로 형성하게 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집단 문화는 같은 구성원들을 서로 결속시키고 비구성원을 분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문화는 한 집단의 공유하는 양식으로 주변 환경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문화의 특징으로 도시 공간은 그들이 선호하는 특성에 맞추어 도시의 패턴이 변하고 다른 집단의 공간과 패턴이 이질화된다[2].

대부분 국가에서 이주민에게 이주국의 문화는 규범처럼 강요되지는 않는다. 문화는 아주 평범한 도구처럼 조작되지도 않는다. 문화는 매우 복잡하며 대부분 무의식의 과정에 속하기 때문이다[3]. 이러한 성향이 그들만의 익숙한 환경의 집단거주지 형성된다.

2.2 국가문화 비교

국가문화 비교이론은 비교경영학에서는 국가와 집단의 문화를 비교하여 국가별 특성을 구별하는 근거로 사용하였다[4]. 이러한 국가문화 비교하는 이론은 단일차원과 다차원 구성개념으로 구분된다. 단일차원은 Hall(1976)이 고맥락문화와 저맥락문화로 구분하여 국가문화를 정의하고 비교하였고, Fukuyama(1995)가 고신뢰성 문화와 저신뢰성 문화로 구분하여 국가문화를 정의·비교하였다. 다차원 구성개념은 조금더 다양한 차원의 문화를 정의하고 비교하기 위해 제기된 이론으로, Kluckhohn & Strodtbeck(1961)은 문화를 한 집단이 공유하는 공통된 가치 지향점으로 정의하고 인간의 본성 지향성,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시간지향성, 활동지향성, 관계지향성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국가문화를 정의·비교하였다. Hofstede(1980)는 국가문화를 집합 프로그래밍으로 정의하며 각 국가의 국민이 공유하는 경험의 결과로서 교육, 행정 및 법체계, 가족 구조, 종교적 성향 패턴, 문학, 건축 및 과학이론 등을 함축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는 국가문화를 권력거리, 불확실성회피, 개인주의/집단주의, 남성성/여성성, 장기지향성의 5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의·비교하였다.

이러한 국가에서 통용되는 가치관의 특징을 이론마다 각자의 기준으로 정의하고 평가하여 수치화하고 국가들의 문화적 현상과 특성을 비교하고 평가한다.

2.3 호프스테드의 문화 차원

호프스테드는 국가의 문화를 정의할 때 권력거리, 개인주의-집단주의, 남성성-여성성, 불확실성회피, 장기지향-단기지향성, 5가지 문화 가치 차원을 100여국 측정하여 0점에서 100점 사이로 점수를 매기고 국가별 문화 가치 순위를 기준으로 국가 간 문화 성향과 성향을 분석하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였다. 그는 이러한 국가별 문화 가치가 외국에서 집거지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개인주의-집단주의, 불확실성회피 차원이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는 이주민의 국가가 집단주의 사회이고 불확실회피 성향이 강한 국가일수록 외국에서 이주민공동체와 집단거

주지역을 형성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특히 이주한 국가가 자민족중심적 성향이 강한 경우 공동체 형성이 더욱 심화된다고 보았다[5].

그리고 불확실성회피 성향이 큰 국가의 이주민일수록 집단거주지에 가능한 한 많이 문화적 표현을 했을 것이다. 익숙한 환경에 안정감을 느끼는 동시에 본인들의 공동체를 알리고 밀집된 세력을 보여주기 위함이다[6]. 그리고 집단주의 사회의 이주민은 이주국의 정책에 불만과 불신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점은 공동체는 더욱 고립되고 그들의 문화적 특성을 더욱 표출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집단주의적이고 불확실성회피 경향이 높은 이주민의 경우 식품과 민족 문화와 관련된 소매업, 레스토랑이 많이 형성된 것으로 예상된다.

3. 중국의 문화와 건축

3.1 중국의 문화 성향

3.1.1 개인주의-집단주의

Hofstede의 연구에서 본 문화차원에 대해 20점으로 높은 집단주의 성향을 보였다. 중국인은 그룹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반드시 그들 자신에 대한 것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매우 집단주의적 국가이다. 조직과 국가에 대한 헌신은 낮지만, 같은 집단의 사람에게는 우호적이다. 반면 다른 집단에게는 냉담적이고 일부 적대적 성향으로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1.2 불확실성 회피성

Hofstede의 연구에서 본 문화차원에 대해 중국은 불확실성 회피에 대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은 법과 규칙을 준수하고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생각하고 실용주의는 삶을 추구한다. 중국어는 서양 사람들이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는 다양한 의미들로 가득하다. 중국인은 적응력이 빠르고 기업가적 성향이 강하다. 가족기반 회사의 비율이 높은 등 불확실한 것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1.3 중국의 문화 성향

호프스테드의 문화 차원에서도 측정되었듯이 중국은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국가로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이다. 우리라는 집단을 배우며 자신을 집단의 일부로 생각한다. 이는 개인의 정체 형성의

주된 근원이 되어 사람이 날 때부터 강력하고 단결이 잘 된 내집단에 통합되어 있으며, 평생 무조건 집단에 충성하는 대가로 그 집단이 개인을 계속 보호해주는 사회이다. 이러한 성향이 앞 절에서 언급한 집단거주지 형성과 건조환경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3.2 중국의 전통공간

건축 및 실내공간은 거주하는 지역의 기후지형-건축재료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독자적으로 형성되며 또한 다양한 특성을 가진다. 넓은 지역과 다양한 기후대에 있는 중국은 공간의 구조 또는 사용된 재료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배치 및 구성에 상당한 유사성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외부로부터의 폐쇄적 공간조직과 좌우대칭이 그것으로 좌우대칭은 건물 전체 배치에서 축의 중심선을 강조하고 공간의 위계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으로 쓰였던 중국의 보편적 공간 개념이며 궁전 대표적이고 사찰이나 주택은 이를 생략축소한 것이다[5]. 한편, 중국은 색채가 풍부하고 선명하며 대비가 강렬하다. 이는 중국 민족의 특성으로 예로부터 열정적이고 풍부한 색채를 선호한다.

3.2.1 건축공간

중국의 대표적 전통주거공간인 사합원은 상류계층의 도시형 주택으로, 목구조와 벽구조가 혼합된 중정형 주택이다. 사합원은 네 개의 건물이 중정을 둘러싼다는 뜻이며 내향적-폐쇄적 공간구성, 축의 공간구성, 중정 중심의 공간구성, 위계적 공간구성 등의 특징을 지닌 독자적 주거형식이다. 사합원은 중정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좌우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공용공간과 사적공간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다양한 무늬와 길사송어와 풍등 등으로 장식되어 있다[6]. 내부공간 중심의 중정을 중심으로 모든 건물은 개방되어 있으며, 주위로 회랑이 이 감싸고 있다. 내부는 정교한 조각, 그림, 문양 등을 사용해서 화려하게 꾸미고, 방과 방 사이에는 가변적 칸막이를 두었다. 나무로 된 칸막이는 공간을 쉽게 구획하며, 여러 장의 작은 패널이 서로 이어지는 형식이어서 쉽게 짜 맞추거나 해체할 수 있다. 개구부의 창살은 장식의 성격도 있는데 직선형, 곡선형, 사선형, 다각형 등 그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밀도는 조밀하다[8].

중국의 궁전건축은 북경의 자금성이 대표적이며 세계 최대 규모이다. 성 내부는 정무 처리 구역(외조)과 황제의 주거 구역(내정)으로 나뉜다. 남북의 축으로 배치된 건물은 모두 남향으로 되어있다.

중국의 불교 사찰은 불상을 모시고 불교의식을 거행하며, 승려가 거주하는 장소이다. 백마사(白馬寺)는 중국 불교 사찰의 시초이며 '중국 제1고찰'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앞쪽은 부처님을 모시는 전각으로, 뒤쪽은 불법을 강의하는 곳으로 궁전과 같이 대칭의 구조이다[9].

3.2.2 패턴과 장식

중국에서 창살은 매우 중요한 내부공간요소로 활용되었다. 궁전의 창살은 외부에는 짙은색의 검정이나 빨강을 바탕으로 꽃장식과 금박으로 화려하다. 반면에 민가는 창살의 형태는 복잡하지만, 색은 소박하고 단아하다. 창살에는 꽃장식을 하기도 하며, 중앙에 특별한 글씨나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커다란 면적의 창살은 실내에 밝은 빛이 가득 차게 하며, 명암효과를 창출하기도 하고,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문양과 사용하는 색으로서 주택의 권위와 주인의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기도 하였다[10].

중국은 건물 내외부 공간에 조명을 많이 활용하였다. 공간에는 화려한 조명 그 자체가 장식적 요소가 되었고 야간에는 조명의 불빛이 건물 내외부의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궁등은 궁전과 부유층에서 사용된 조명으로 흰 바탕에 무늬 등으로 꾸며져 있고 장식 조각이 많은 테두리에 술이 여러 개 달려있다. 궁등은 조명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예술품으로 생각된다. 흥등은 밝음과 행복 그리고 화합을 상징하는 중국 문화의 상징물로 집안의 액운을 물리치고 평안과 부귀영화를 불러온다고 생각하는 타원형의 등이다. 주로 붉은색이며 종이와 실크로 만들어지고 특별한 장식 없이 술이 달려있다. 형태는 구형, 원통형, 사각형이 있다.

3.2.3 색채

중국에서 색의 역할은 중요하다. 중국 전통건축에서 색채는 건축 내부구조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며 예제등급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궁궐건축은 빨강, 녹색, 노랑 등 명쾌하고 밝은 색채들이 대량으로 건축의 내, 외부 구조인 문창, 지붕, 기둥에 사용되어 눈에 띄는 건축색채로 사람들의 시신경에 자극한다. 건물 내외부 전체를 오색을 모두 사용하여 화려하게 장식하고 청산 녹수의 화면을 구성하면서 완벽과 화합으로 찬란함을 나타냈다. 이러한 색의 구성은 북방의 자연환경과 연관이 있다. 단조로운 색채의 평원에서 선명한 색을 건물에 사용하여 건물을 부각시켰다. 반면 산과 강을 끼고 있으며 사계절이 날씨가 따뜻한 남방 지역은 상대적으로 담백한 색채를

사용하였다. 흰벽과 회색을 기와에 사용하고 밤색, 흑색, 감색 계열은 대들보, 기둥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색은 남방의 무더운 여름에 사람들에게 시원한 느낌을 주고 강렬한 색이 주는 조급성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였다[11].

4. 대상지 분석

4.1 조사구간과 분석요소 선정

4.1.1 조사구간

대림2동에서 조사구간은 Fig 1처럼 대림역 12번 출구부터 대림중앙시장 출입구까지 약 320m의 상업가로로 선정하였다. 이곳은 중국인을 중심으로 상권화된 지역이며 대림2동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상업가로이면서 대림역,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과 연결되어있으며 국내 대표적인 중국(연변)거리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도시건축 문화적 가시성을 관찰하고 분석하기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하여 조사구간으로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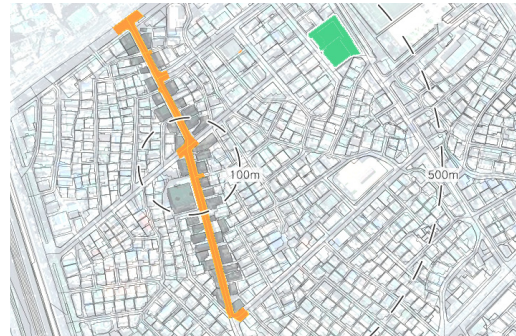


Fig. 1. Research Area : Daelim dong

4.1.2 문화 특성요소

문화적 속성은 인류학 선행연구들에 따라 이주민 집단 거주역의 역사, 거주인 현황, 언어, 민족경제, 행사, 종교, 음식 등 보이지 않는 이주민 공동체의 특성을 분석한 [12]. 첫째 역사는 이주민의 형성전과 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둘째, 인구현황과 사용언어는 이주민의 문화가 공유되고 있는지, 체류 이주민의 증감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지역내 상업시설 조사로 이민자의 경제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체류국의 주류사회에서 차별과 공동체의 사회적 분리로 이주민 경제가 시작되는 경향이 있으며 주로 출신국의 음식과 관련되어있다. 넷째, 종교

와 민족 행사로 일부 국가는 종교가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혀 있다. 종교의 특이점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공동체가 강화되고 지속하는 기회가 되는 출신국 문화의 명절과 기념일과 관련된 행사가 열리는지 확인한다.

4.1.3 도시건축 특성요소

물리적 특성은 인간의 상호 작용과 활동으로 형성된다. 출신국과 장소의 연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일부 이주민 공동체에서는 출신국의 유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그곳에 투영함으로써 그들의 영역을 표시한다고 느낀다[13]. 이러한 특성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그들의 출신국의 문화와 연관성을 확인한다. 첫째, 지리적 특성으로 국내 외국인 집거지는 구도심, 산업단지, 농어촌지역 등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14]. 분석될 지역의 교통, 자연환경, 기반시설 등 지리적 특성을 확인한다. 둘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상 지역이 도심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주변 지역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대상 지역의 도시, 건축의 문화적 특성을 확인하기 선행연구와 지침에서 사용된 도시의 맥락,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지구단위계획 지침, 도시경관 가이드라인, 도시가로 환경평가 등에서 언급한 도시건축 환경요소 중 외국인 밀집지역에 문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여 실증조사를 하였다[2].

도시, 건축의 문화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선정된 항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 번째, 출신국 유형(Indigenous style)로 분류되는 요소들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도시·건축을 구성하는 요소가 그곳을 점유하고 있는 국가의 고유문화나 디자인,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문화와 디자인의 경우를 의미한다. 두 번째, 한국형(Local style)로 분류되는 요소들은 국내 도시 가로에서 흔히 보이는 도시·건축적 디자인과 요소들이다.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Local style을 보인다는 것은 체류국의 문화에 동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세 번째, 보편형(Global style)로 분류되는 요소들은 세계 도시지역에서 흔히 보이는 도시·건축적 디자인과 요소들로서 국적이 불분명하거나 전 세계 유행처럼 생겨난 보편적 유형이다. 이는 체류국 문화보다 국제주의적 문화에 적극적으로 동화되어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2].

4.2 대상지의 인문학적 분석

70년도 초까지 논과 밭 지역이었던 대림동은 70년대

부터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80년대 영등포 일대가 공업지역으로 발전하는 시기에 세력이 확장되어 상업가로까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후 2호선과 7호선이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가 되었다. 대림동은 70, 80년대 구로 공업단지의 저렴한 주거지 역할을 하였고 2003년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의 재개발 사업이 시작하면서 직장과 주거지를 잃은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들이 지가가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한 대림동으로 모이기 시작하였다. 그후 대림동 주변으로 중국인들은 2호선을 따라 집단거주지역이 확산하였다. 2008년 이후 79개의 중국 음식점이 문을 연후 대림2동 지역의 중국화는 가속화되었고, 이 지역의 풍경도 변하였다.

대림동은 구로구 가리봉동의 재개발로 인해 중국인과 한국계중국인들이 이주한 지역으로, 2000년까지는 대부분 내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2000년 이후 외국인 근로자가 점차 증가하고 주변지역에 재개발 사업으로 중국인 이주가 점차 증가하다 2014년 9,897명을 기점으로 9,000명 정도로 약 40% 초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주택의 노후화와 일부 주거환경이 중국화되면서 한국인의 거주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대림동 지역은 중국인과 한국계중국인 모두 중국어를 사용하며 대부분 상업시설의 간판은 한자(간체자)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한글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부 영어로 된 간판이 있으나 많지 않다. 대부분 음식점과 소매점에서는 중국어 사용이 가능하였고 한글도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였다. 일부 직원은 한국어가 어색한 사례도 있었다. 대림2동 중국인 거리 대부분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실은 대림2동의 중국인 밀집지역은 이주민을 위한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국가공간정보포털 소상공인 상권정보 상가업소 데이터자료에 따르면 대림2동의 상업시설은 631개로 나타났다[15]. 음식점이 241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음식점은 중국과 관련된 식당이며 인구 100명당 1.09개의 비율로 음식점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소매점과 생활서비스 시설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소매점도 중국과 관련된 식품을 판매하는 곳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특장상 체류자의 출신 지역과 관련된 음식점과 소매점이 많았다. 거주자 100명당 비율은 국내 비교 대상 지역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유흥시설이 28개로 거주자 100명당 0.13개의 비율로 국내 비교군의 0.04개보다 3배 높게 나타나 주목할 만하다.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국 국제종교 자유위원회 등 다수의 단체에서는 중국인

은 종교에 대해 탄압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하였다. 일부 중국인들은 교회와 성당에 나가지만 공동체 내부에 그들을 위한 특별한 종교적 행사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다만 일부 종교단체에서 대림동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도움을 주려는 행사만 일부 이뤄지고 있었다.

중국의 전통 4대 명절(청명, 단오, 중추, 춘절) 중 가장 큰 명절인 춘절에 중국 이주민들은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대림동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Fig 1처럼 춘절에 관련된 식품이 판매되거나 상점과 길거리에 춘절을 알리는 홍보물 정도 붙여져 있다. 일부 흥등으로 가로를 장식하기도 한다. 일부 영등포구청에서 한국계중국인과 중국인을 위한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행사는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2. daelim dong festivals

4.3 도시건축환경 분석

대림동은 동쪽으로는 동작구 서쪽으로는 구로구 남쪽으로는 도림천과 인접해있다. 대림동은 서울에서 광명시, 부천시를 연결하는 위치이며 2호선과 7호선이 이어주는 대림역이 있으며 주변에 구로디지털단지, 교통의 요지이다. 대림2동은 주거밀집지역으로 대부분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구로디지털단지 주변에 일부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있다. 대상지는 오래된 주거지역으로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되어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Fig. 3. old residential area

대림2동의 경우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비율이 74%로 서울시 평균인 41%보다 월등히 높으며 30

년 이상의 주택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 Fig 3처럼 주거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저렴한 임대료로 중국인 노동자가 모여들면서 지역 풍경이 변해갔다. 간판은 중국어로 바뀌고 한국인을 상대하던 상가, 서비스시설들은 점차 중국인을 위한 시설들로 변해갔다. 특히 여행사와 물류와 무역을 하는 업체가 증가하였다. 그들만을 위한 웨딩홀, 미용실, 유흥시설도 증가하였다. 또 노상 판매대가 증가하면서 도로가 좁아지기 시작하고 불법주차도 증가하였다. 입간판도 하나둘씩 증가하여 가로가 어지럽게 변하였다.

대림 2동의 지역에는 역사적으로 보존하는 장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내 역사성과 정체성이 반영되거나 이주민의 정신적 역할을 하는 장소는 없었다. 대상지의 가로환경은 노후화된 주택과 무질서한 옥외광고물로 인해서 복잡하고 주거환경이 관리가 잘되지 않은 지역으로 보였다. 중저층의 건물이 밀집하였고 내부도로는 좁고 주차장이 마련되었지 않아 여기저기 불법주차한 자동차가 많았다. 지역 내 공원은 다사랑 어린이공원이 유일하여 인구대비 자연환경이 부족하였다. 지역과 관련된 마케팅 요소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Fig 4처럼 무질서하게 설치된 빨간색과 노란색의 중국어로 된 옥외광고물과 다양한 중국요리 음식점과 상점이 지역의 마케팅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Fig. 4. Facade in Daelim 2dong

대상지 건물의 31개(83.78%)의 저층부에 어닝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닝을 통해 노후화되고 좁은 내부공간을 가로 방향으로 판매공간을 확장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어닝의 색은 붉은색이 70.27%(26개)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고 이외 검은색 8.10%(3개), 파란색 5.40%(2개)가 설치되어있었다. 설치된 어닝 하부공간에 62.16% 건물이 노상 가판대를 설치하였다. 어닝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을 제외하면 74.20% 건물이 어닝 공간을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소매점과 음식점에서 가판대의 확장과 포장 판매, 조리를 위한 공간을 활용하였다. 이 지역은 옥외광고물이 상당히 많으며 색상, 크기,

설치 위치가 규칙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있다. 옥외광고물은 중국어로만 쓰여있거나, 한글과 혼용된 광고물이 67.57%(25개)로 나타났다. 이런 수치는 대다수 상점이 중국인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으로 보인다.

대상지에 개방감이 있는 건물이 21.62%(8개)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건물 전면이 유리 샷시로 되었거나 커튼월로 구성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이유는 고정식 가판대와 옥외광고물, 광고스티커 등으로 내부공간 간의 개방감이 낮게 나타났다. 건물 외벽과 옥외광고물, 창, 창틀, 어닝, 기타 장식물 등에 사용된 주요색상은 붉은색이 34.15%(28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은색과 파란색, 노란색이 각각 18.29%(15개), 14.63%(12개), 12.20%(10개)로 나타났다. 붉은색은 중국 전통건축에서 자주 사용된 색이며 노란색은 중국의 국기에 사용될 정도로 선호하는 색으로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상지는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파사드와 광고물 등 가로의 모습에 통일감이 있지 않으며 각 건물은 제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불규칙한 건물의 모습은 가로와의 어떠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시각적 연속성과 공간 지각의 연속성은 없어 보인다. 중국의 전통 이미지, 건축적 특성 등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는 건물이 26개(70.27%)로 나타났다. 대부분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마치 중국 본토에 있는 것처럼 연상된다. 이런 건물들은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관은 중국인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내국인에게는 이국적 경관을 느끼게 한다.

대상지를 통과하는 도로 현황을 살펴본 결과, 도록 폭이 6m, 14m로 분포하고 있으며 보차분리가 거의 되지 않는 보차혼용의 지역 내부로였으며, 일부 보차분리된 도로가 존재하여 가로에서 안전성과 편의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대림역 12번출구와 인접하고 여러 버스정류장이 인접하여 접근성은 양호하다. 대상지 디지털로37길과 도림로38길의 주출입은 북쪽에 대림역 남쪽에 디지털로에서 연결되고 동서의 경우는 좁고 복잡한 골목을 통과해서 진입할 수 있어 다소 폐쇄적이다. 대림2동에는 생활권 공원이 어린이공원 한 개가 초등학교에 인접해서 있다. 지역의 체류 인구와 상업가로의 규모보다 공지, 공원, 광장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 공원이 부족해서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어린이는 없고 노인과 일부 주민이 휴식을 취하는 공원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대림2동에서 가로시설물 중 안내판과 싸인 등 중국어로 되어있으며, 불법으로 쓰레기 투척이 많아 감시카메라와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안내판이 많이 설치되어있었다. 가로에서 식재와 분수는 없었고 가로등도 최소한으로 존재하여 야간에는 어두운 지역이었다.

Table 1. Site analysis

Factor	Characteristics
Cultural va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gh collectivism • High uncertainty avoidance
Residential characteris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gh apartment ratio • The ratio of old houses is high
Living enviro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gh population density • Poor environments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areas and redevelopment)
Commercial fac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velopment of immigrants economy(Chinese restaurants & retails) • Large markets
Infrastruc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rrow roads(less than 4m) • Relatively flat • lack of parks
Accessi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venient public transportation • Lack of parking space • A lot of awning for extension for illegal street vendors
Religion & ev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ew religions and events • Festivals for people from immigrants
Faca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organized outdoor advertisement • Use favorite color in China • Low openness(dense advertisement)
Streetsca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vironment similar to the country of origin (building exterior walls, lights, advertisements, window frames, awnings, and other decorations)

4.4 중국의 문화와 이주민 주거환경

중국은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국가 중 하나로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회이다. 우리라는 집단을 배우며 자신을 집단의 일부로 생각한다. 이는 개인의 정체 형성의 주된 근원이 되어 사람이 날 때부터 강력하고 단결이 잘된 내집단에 통합되어 있으며, 평생 무조건 집단에 충성하는 대가로 그 집단이 개인을 계속 보호해주는 사회이다. 이러한 성향으로 대림2동의 사례는 중국인이 모여 집단거주지를 만들고 지역에서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노출하고자 한다.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거부감이 강한 성향으로 지역의 민족경계를 구축하였다. 대림2동의 중국인 민족경계는 내국인과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닌 순수하게 중국인을 우선하였다.

대림2동의 중국인 밀집지역은 저렴한 주거비용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찾아 집단거주지를 형성하고 민족 위주의 민족경계를 활성화했다. 중국인 밀집지역과 민족경계 형성은 중국의 집단주의적 성향과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를 두려워하는 문화적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화적 성향은 언어사용에도 적용되어 지역내 어디에서도 중국어 사용이 가능하고 중국어로만 된 시설도 많은 것으로 보아 자기 민족만의 폐쇄적 지역을 형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곳은 자민족 중심의 폐쇄적 행사를 진행하면서 내국인과의 교류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대림2동은 중국인의 쾌적한 거주환경보다 경제적이고 편리함을 우선하는 문화 성향이 반영되었다. 건물 저층부와 연결된 가로에 고정식 가판대를 설치하여 공간을 불법으로 확장하였다. 체류국의 규칙이나 법보다 편리함을 우선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대상지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크기, 설치 위치 등에 대한 규칙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있고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옥외광고물은 대부분 중국어로 되어있어 내국인을 포함한 다른 국적 방문자의 고려가 적었음을 알 수 있다. 무분별한 옥외광고물과 외부의 고정식 가판대로 인해 전면개방감이 낮았다. 시각적 분리를 통해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분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의 가로환경과 건물, 옥외광고물 등에 붉은색과 노란색이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전통건축에 많이 사용하고 중국인이 선호하는 색으로 문화적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문화적 성향이 반영된 건물의 비율이 높아 대림2동 지역의 가로경관 형성과 정체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의 문화적 성향이 대림2동 중국인 집단 거주지 형성과 물리적 환경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호프스테드의 문화 비교이론과 대상지의 건조환경을 실증조사 및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연관성을 확인했다.

첫째, 중국의 문화적 특성이 강한 집단주의 성향과 불확실성회피 성향은 대림2동 집단거주지역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국가 중 하나로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회이다. 우리라는 집단을 배우며 자신을 집단의 일부로 생각한다. 이는 개인의 정체 형성의 주된 근원이 되어 사람이 날 때부터 강력하고 단결이 잘된 내집단에 통합되어 있으며, 평생 무조건 집단에 충성하는 대가로 그 집단이 개인을 계속 보호해주는 사회이다. 이러한 특성이 익숙하지 환경에 동일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같은 출신국 사람들이 모여

이주민공동체와 집단거주지를 형성하고, 지역을 익숙한 환경으로 변화시켰다.

둘째, 중국의 강한 집단주의적 성향이 자민족중심적이며 폐쇄적인 지역으로 변화시켰다. 지역 대부분이 중국인을 위한 시설로 형성되어 있고, 중국어 위주의 옥외광고물, 중국인들을 위한 행사 등 주변 지역과 내국인들과 소통이나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또 부분별한 옥외광고물, 불법 공간확장, 불법도로 점유 등으로 국내 법규를 무시한 채 가로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국내법과 규칙이 기반이 된 것이 아닌, 이주민공동체의 공유되는 가치관에 근거하여 행동하여 생겨난 현상으로 보인다.

셋째, 불확실성회피 성향이 중국의 문화적 성향이 대림2동의 정체성을 형성시켰다. 기존의 일반 노후 주거지역이었던 대림동을 마치 중국에 있는 것처럼 가로경관을 변화시켰다. 가로환경과 건물, 옥외광고물 등에 중국인의 선호색을 사용하였고 창틀, 풍등, 옥외광고물, 가판대, 화려한 조명 등 다양한 요소들이 지역을 익숙한 환경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익숙한 환경이 이주민으로 하계끔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가지게 하였다.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거부감이 큰 성향으로 지역 민족경제를 구축하고 중국의 거주환경과 유사하게 주변 환경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지역에 형성된 민족경제는 내국인과 기존의 주민보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이곳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중국인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유대감을 제공하였고 자신들의 영역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였다. 반면 국내사회로 자연스럽게 동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마찰이 발생하고 이주민과 관련된 부정적 사회 이슈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지역사회에서는 그들의 문화적 특성과 주거환경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이해하고 이주민의 성향과 상황에 적합한 정책수립과 다양한 관심으로 그들을 국내사회로 자연스럽게 동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이주한 중국인 집단거주지 중 대림2동을 한정하여 진행하여, 국내 모든 중국인 밀집지역의 특성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운 연구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단순히 출신국의 외형적 유사성만으로 분석한 것이 아닌, 한 국가의 문화 성향이 이주민 집단거주지역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시사점을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주민공동체를 조사하여 국가별 문화 성향에 의한 환경변화를 넘어서, 항목별 문화적 성향에 따른 건조환경의 변화와 형성의 특성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REFERENCES

- [1]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985). *The task of advancing national culture*. Sungnam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2] C. Y. Park. (2020). *The Study on Typology of Areas Densely Populated with Foreigners and Urban Environment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3] Denys Cuhe. (2009). *La notion de culture dans les sciences sociales*. Paju. Hanwool Academy.
- [4] R. S. Bhagat & S. J. McQuaid. (1982). Role of subjective culture in organizations: A review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7(5), 653-685. DOI : 10.1037/0021-9010.67.5.653
- [5] G. Hofstede. (2011). Dimensionalizing Cultures: The Hofstede Model in Context.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2, 8.
- [6] Y. K. Kwon. (2001). *A comparative study on the formative spirit and method i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traditional spaces*.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7] S. K. Son. (2001). *Chinese houses in a deep view*. Paju : yeolhwadang.
- [8] J. Y. Park. & Y. S. Lee. (2000). Comparative Study on Graphic Examples of Traditional Lattices in Korea, China, Japan - Focused on grid type from geometrical viewpoint. *Korea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3, 139-147.
- [9] L. Bingji. & C. Shin. (2008). *Chinese architectural art*. IIsan : Bookdaega.
- [10] J. Y. Park. (2000). *lattice complex culture, multi-culture, modernization of traditional lattices, comparison of oriental designs*. Graduate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11] Y. Yong. (2008). *A Study on Comparing Interior Architectural Formation According to Environmental Factors in East Asian*. Graduated dissertation. Hanseo University, Seosan.
- [12] A. F. Bakri, N. Qamaruz Zaman, H. Kamarudin, M. Mohd Dom & Z. Alias. (2014, January). The Physical and Cultural Attributes of Ethnic Enclave: A Basis for Conservation. *MATEC Web of Conferences*, 15(12). France. : web of Conferences
- [13] E. Chako. & I. Cheung. (2006). *The Formation of a Contemporary Ethnic Enclave: The Case of "Little Ethiopia" in Los Angeles*. In Frazier, J.W. & Tetey-fio, E, *Race, Ethnicity, and Place in a Changing America*. United States of America: Global Academic Publishing.
- [14] S. H. Park et al. (2009). *Urban policy research in response to a multicultural society(1):Current Status*

and Policy Tasks of Foreign Concentrated Area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15] Small Business Association. (2018). Public Data Portal, https://www.data.go.kr/dataset/fileDownload.do?atchFileId=FILE_000000001604883&fileDetailSn=1

박 찬 영(Chan-Young Park)

[정회원]



- 2006년 2월 :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공학사)
- 2009년 11월 : 런던대학교 건축과(건축학석사)
- 2020년 8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공학박사)
- 2020년 8월 ~ 현재 : 컬처앤스페이스

대표

- 관심분야 : 건축, 도시, 문화, 주거, 아카이브
- E-Mail : pcy8013@snu.ac.kr

최 준 호(Junho Choi)

[정회원]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공학사)
- 2015년 2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공학석사)
- 2020년 2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공학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서울대학교 건설

환경종합연구소 연구조교수

- 관심분야 : 건축, 주거, 종교
- E-Mail : ho3737@snu.ac.kr